

고흥군, “어린이음악극 ‘거인 앙갈로’ 공연 선보인다”

27일 오후 7시 고흥종합문화회관 김연수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7일 오후 7시에 고흥종합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작인 춤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를 선보인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해 우수한 국·공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의 공연 기획과 제작을 지원해 전국 각지에 공연을 유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 공연은 필리핀 전래동화 '바닷물은 왜 짠까?'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맷돌'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어린이음악극으로, 필리핀 북쪽 지방의 칼링가(Kalinga) 사람들이 앙갈로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야기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공연 음악은 필리핀 전통악기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현지 민요 오르데-에(Orde-e)를 편곡, 활용해 여행의 흥겨움과 기쁨을 투영한 리듬이 인상적이다.

군 관계자는 “필리핀과 한국의 우화가 만나 높은 수준의 연극이 탄생했다”며 “이 연극을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이 넓어지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지난 16일 호러극악콘서트 '귀곡산장'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다음 예정작으로는 ▲8월 13일에는 '한스집머 게임영상 영화음악 콘서트' ▲9월 3일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마술쇼 '미디어X일루전 갤럭시 일루전 쇼'가 있다.

/이유빈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7일 오후 7시에 고흥종합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작인 춤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를 선보인다. /고흥군 제공

해남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

해남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시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지 포함) 전단지 등을 회수해 제출하면 읍면에서 확인 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로서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저소득층 또는 관내 중·고등학생이다. 단 해남군에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읍면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지급된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자칭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해 깨끗한 거리 조성하고 함께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내달 4일 종료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19일 기준 보성군의 신청접수 건수는 3천99건 4천124필지로 2천742건 3천654필지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4일까지 신청접수 건은 2023년 2월 6일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번호사나

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만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장흥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장흥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

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천440만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

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1억7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소득기준(월 50만원~2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선정된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으뜸마을 평가 실시

완도군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91개 중 지자체 심사로 선정된 5개 마을(완도읍 향동, 금일읍 월송, 약산면 여동, 금당면 울포, 보길면 중리)을 대상으로 전남도 으뜸마을 평가단의 현장 방문 이미지 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이미지 평가는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및 자치분권 팀장, 외부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 평가단이 마을을 방문해 진행했다.

평가 대상지 중 금일읍 월송마을은 마을 회의를 통해 월송해송팀 주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고, 매주 주민들이 해변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금당면의 울포마을은 울포항 방파제 주변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을 두어 주민 쉼터를 마련했고, 아간 조명까지 설치해 평가단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백나영 기자

진도군, 응급처치 이론·실습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진행

진도군이 최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비롯 군민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교육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시 응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이론과 실습 위주로 실시됐다.

심정지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4분 안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

/이현일 기자

